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08
2014.0708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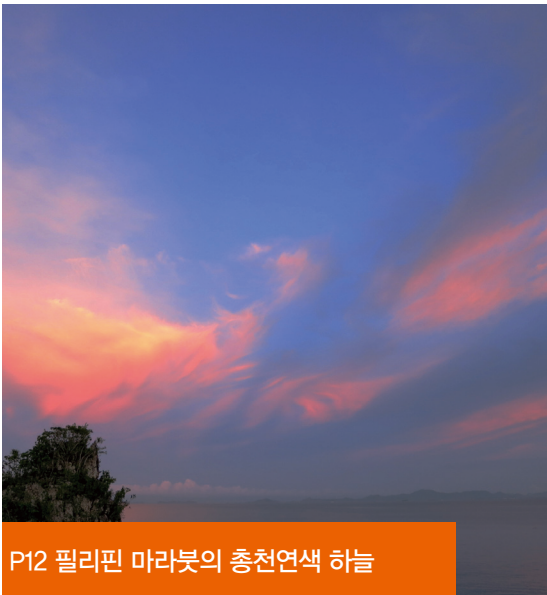
인도 건기에 물이 바짝 말라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두르가푸르 마을. 더운 여름날 뜨거운 햇살 아래 핸드펌프를 설치하는 미스트리 아저씨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뽑고 있습니다.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10 양치질 후에 하얀 이를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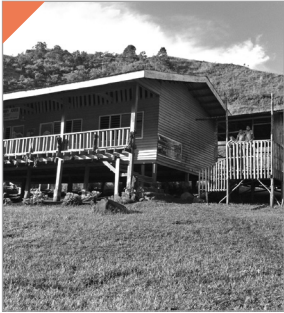


P12 필리핀 마라뱃의 총천연색 하늘



P13 학교 신축을 위한 타생 마을회의 모습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핸드펌프를 만들어주세요! | 민도연
-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만타부 이야기 | 김희자
마라뿔 하늘을 품고 사는 즐거움 | 원석환
- 13 **싸바이다, 라오스**
희망을 짓는 곡농부아 학교 이야기 | 문태훈



활동터소식

- 16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라오스
- 21 **후원인의 소리**
- 22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펴낸날 2014. 7. 14 펴낸이 범윤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펴낸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천유라, 안재현, 윤재승, 김옥희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핸드펌프를 만들어주세요! - 등게스와리에서 다시 보는 물

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더운 여름에 물이 말라버려 물 사용이 어려운 마을들이 있다.
요즘은 건기를 대비해서 핸드펌프를 새로 설치하고 고장난 핸드펌프를 수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 여겼던 물 사용에 대해 이곳 등게스와리 마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민도연 활동가

오늘은 산 너머 마을인 까나홀, 바가히, 방갈비가를 가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뜨거워지는 햇빛 때문인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길이 멀어서인지 마을로 가는 길을 나서며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된다. 감치(열을 막기 위해 머리에 두르는 얇은 천)를 머리에 얹고, 마실 물을 챙기고, 바람 빠진 자전거 바퀴에 바람도 채운다. 햇볕이 가장 강할 때는 인도 사람들도 잘 나다니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함부로 돌아다녔다가 머리에 열이 차올라 고생했던 적도 있다.

“양동이를 이고 가서 사용할 만큼 핸드펌프로 퍼와야 하고,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나올 경우 우물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한다”

마을개발팀으로 배정되고 이제 3개월 째. 이제야 적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신기한 것들이나 새로운 것들에 적응 중이다. 핸드펌프? 시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는 생각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 새 매일 마을에 나가 핸드펌프 점검도 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있다. 산 너머 마을에 갈 땐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산 너머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이나 가야(Gaya) 시내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살 같기도 하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지나가면 “나마스떼, 시스테!” 하며 아이들이 인사를 한다. 나도 신나게 한명 한명에게 “나마스떼! 나마스떼!” 라고 소리치며 달려간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재는 나마스떼 나마스떼만 계속 한다”며 우스워하기도 한다.

수자타 아카데미 교문 밖의 동게스와리 지역에는 각 마을마다 핸드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손으로 펌프질을 하여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 올려 사용하는 것이다. 요즘 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사용중인 핸드펌프를 JTS가 설치한 것과 정부의 것으로 분류하고 물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처음 인도에 와서 마을을 구경할 땐 그냥 ‘핸드펌프가 있구나’ 하고 지나쳤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설거지도 여기서 하고 샤워도 여기서 하는 등,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했던 물은 정수기나 싱크대, 세면대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손만 대면 나오는 물이다.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어느 때나 쓸 수 있고 속탈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물은 다르다. 이곳의 물은 집 밖에서 구할 수 있으며, 양동이를 이고 가서 사용할 만큼 핸드펌프로 퍼와야 하고,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나올 경우 우물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1대의 핸드펌프로 10가구 이상이 사용해야 한다.

핸드펌프 손잡이를 눌러본다. 시원하고 맛도 괜찮은 물이면 다행이다. 그러나 모래가 섞이거나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물이 나오



“이렇게 한 대의 핸드펌프가 설치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갔다”

면 사람들은 또 어디서 물을 길어다 먹을까? 내 불편함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어서 여지껏 그냥 ‘저렇게 사나다’ 하고 넘어갔었구나 싶다.

핸드펌프에서 나오는 물은 마을 마다 상태가 달랐다. 핸드펌프에 연결된 쇠 파이프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물에서는 기본적으로 쇠 냄새가 많이 난다. 수자타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의 땅 속에는 석탄층이 많아 깊이 팔 수도 없다. 조금만 깊이 파도 석탄층이 나오므로, 물에서 검은 부유물에 철 성분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 그나마 마을의 우물 물은 깨끗한 편이라 핸드펌프의 수질이 안 좋은 마을은 우물 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기가 되면 그 우물도 바닥을 드러낸다. 우물은 매우 깊은데다 여자들이 퍼나르기에는 힘도 많이 들고, 아이들이 빠질 위험도 크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개발팀에서 핸드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보링(boring,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땅에 구멍을 뚫는 작업) 작업과 우물 덮개 설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 초부터 석탄층이 많아 주로 우물을 사용하는 마을엔 우물 덮개를 설치하고 그 덮개 위에 핸드펌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새로 핸드펌프가 설치된 마을은 12개이다. 어느 자리에 핸드펌프를 설치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 가구가 사용하기 좋은 자리가 어딘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한다. 자리가 결정되면 기계로 땅을 파기도 하고, 미스트리(기술자) 아저씨들이 직접 땅을 파기도 한다. 핸드펌프를 설치하기로 한 위치의 상황에 따라 땅 파는 깊이를 70피트에서 150피트까지 다르게 작업을 한다.

두르가푸르 마을에 핸드펌프 보링 하는 날, 활동가들과 잠시 기계 보링 하는 것을 보러 갔다. 대형 차량과 큰 기계, 업체 사람들, 그리고 온 동네 아저씨들과 꼬맹이들이 모여 있었다.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는 보링 작업. 파이프가 땅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하루종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 보링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다들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듯했다.

하루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보링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더운 여름 날,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일한 보링 업체 아저씨들과 핸드펌프를 설치한 미스트리 아저씨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뜨거운 건기가 오기 전에 핸드펌프 설치가 완료되었다. 한창 결혼을 많이 하는 때에 핸드펌프를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수리 요청이 많았었는데, 그 때에도 미스트리 아저씨들이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똑딱 고쳤었다. 이렇게 한 대의 핸드펌프가 설치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갔다. 물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핸드펌프 자체나 물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마을에 계속 나가서 눈으로 상황을 직접 보고 마을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점점 둥게스와리에 애정이 생기게 되었다. 마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는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올 것에 대비하여 지붕 수리를 많이 한다. 각 계절 마다 마을에 필요한 일이 끊임 없이 생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둥게스와리의 환경적인 면을 보존하면서 개발해나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하트보링(손으로 직접 파는 보링)중 뿜어져 나오는 물

만타부 전경



만타부 이야기

- 필리핀의 작은 마을 만타부를 소개합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민다나오 섬. 민다나오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키탕클라드 산 중턱에는 원시림에 둘러싸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타부 마을이지요. JTS 센터에서 만타부 마을로 가려면 깊은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마을 맞은편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까지 가서 50미터 높이의 계곡을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 부보나완 강에 놓인 흔들다리를 건너서 다시 30미터를 올라가는 여정이지요.

과거 만타부는 공산반군(NPA)과 정부군 사이의 분쟁으로 항상 두렵고, 먹을 것과 소득이 없어 아이들을 쉽게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만타부 지역에 띄엄띄엄 코콘그래스로 초가집을 짓고 살았었지요. 그런 와중에 민다나오 섬에서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JTS가 만타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희자 활동가

만타부 학교 전경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만타부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만타부 학교는 27명의 유치원생들과 1학년 35명, 2학년 55명, 3학년 15명, 4학년 22명 등 학생 154명이 공부하는 제법 큰 규모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만타부 학교가 성장하면서 마을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인근에 흩어져 살던 주민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만타부 마을로 이주해온 것입니다. 산 속에 살던 사람들은 만타부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코곤그래스로 열기설기 엮었던 집의 지붕을 튼튼한 양철 지붕으로 바꾸는 등,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회와 체조시간



지난 해에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학예회가 열렸고, 올 3월에는 2013-14학기를 마무리하는 종업식도 근사하게 열렸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학교에 모여 함께 행사를 치르면서, 어느새 만타부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만타부 학교 성장기

2006년 8월, JTS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1헥타르 남짓한 땅을 기부 받고, 여기에 2개의 교실을 갖춘 학교와 교사 숙소를 지었습니다. 개교 첫 해에 55명의 학생이 1학년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닦기와 손 씻기 운동도 한창입니다. 현지 교육청과 JTS가 함께 칫솔을 나눠주고, JTS가 치약과 비누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수업 전, 점심 시간 이후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칫솔과 치약으로 이를 닦습니다. 충치가 생겨도 치과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닦기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종업식 증서 전달식



2013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또한 이곳 아이들은 배앓이를 많이 하는데,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깨끗하지 않은 손과 물통으로 받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업 전후, 화장실 이용 전후에 비누로 손 씻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이를 예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타부 학교의 변화

8년의 세월이 지나 학생 수가 세 배 늘어난 올해 6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만타부 학교는 한가지 큰 결정을 했습니다. 2014-15학기에 4학년 학급을 개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만타부 학교에서 3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10킬로미터나 떨어진 실리폰 초등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4학년 학급을 개설하면서 현재 기초학교(primary school)인 만타부 학교가 6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동안은 교실 2개에서 계약직 교사 2명이 유치원생 부터 1학년~3학년 학생들 까지 동시에 가르치는 복합 학년(multigrade) 수업을 해왔는데, 만타부 학생 수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마을 주민들과 지역 정부, 교육부, JTS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계약직 교사 중 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교사 한 명 추가로 파견하여 기존 2명이었던 교사 수를 3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역 정부와

이를 열심히 닦고 있는 아이들



이를 다 닦았음을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있는 아이들



JTS는 각각 함석 지붕과 못을 지원하여 교실 증축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을 짓도록 도왔습니다.

임시 교실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도 미루고 집집마다 대나무 한 대, 나무 한 그루씩을 모아 교실을 지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들

4월 30일 임시 교실 증축을 위해 논의중인 만타부 마을 사람들



학부모 회의중



만타부 임시교실



은 학교 공터에 모여 임시 교실을 짓기 위한 사전 계획수립을 위해 두런두런 논의를 하고, 매주 진행해야 하는 공정에 대해 일감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함석 지붕을 고정하는데 쓰는 못을 사는 대신, 페타이어를 잘게 잘라 철사를 끼워서 못을 대신하는 알뜰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는 만타부 학교

2014-15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찾아간 만타부 마을은, 조용하지만 곳곳에서 웃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학교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학부모를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새 교과서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립학교에서 쓰고 난 뒤 물려받은 중고 교과서를 만타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씩 정성스럽게 닦아 책꽂이에 꽂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진 선생님과 아이들, 주민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만타부 학교는 물론 만타부 마을까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타부 학교는 이처럼 모두의 관심과 도움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마라뵈에서 보낸 편지

마라뵈 하늘을 품고 사는 즐거움

필리핀 사마르 섬 마라뵈의 하늘은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한국의 하늘도 아름답지만, 필리핀 하늘의 모양과 색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운 향연을 펼쳐줍니다.

필리핀의 빈번스러운 기후는 날씨를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필리핀에는 일년에 대략 26개 정도의 태풍이 찾아오는데, 청명했던 하늘이 태풍이 불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작년에는 100년에 한번 볼 법한 태풍이 마라뵈를 덮쳐 삶의 터전도 배앓아 갔을 뿐 아니라 수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이지만, 아침을 부지런히 맞이하는 밝고 긍정적인 마라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합니다.

물론 그 전의 일상보다는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단순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웃음까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웃음이 아이들의 표정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무엇도 변화의 바람을 막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지루하다며 우울하게 사는 분이라면 마라뵈에 놀러 오세요. 일상의 즐거움을 하늘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뵈의 하늘



필리핀 JTS - 원석환 활동가

타생마을에서 JTS활동가와 이장, 교사, 교육청 담당자가 함께하는 회의



희망을 짓는 곡농부아 학교 이야기

- 라오스 JTS 번지수를 제대로 찾다!

라오스에서는 곡농부아마을 학교건축을 계속 진행했고, 새로운 학교건축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답사를 다녔다. 이번에는 현장 다니면서 간단하게 적어두었던 것을 공유하고 싶다.

학교 건물도 남고, 건축과정도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외받는 지역까지 찾아가려면 더 노력해야겠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다. 자주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자주 놓치는 것들이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문태훈 활동가

5월 초 쿡농부아마을 학교의 건축상황



쿡농부아 학교건축 이야기

5월 ~ 6월 학교 건축은 윗 보를 올리고 지붕 없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거푸집이 모자라서 목재 주문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로 인해 중간 중간 흐름이 끊기면서 공정이 탄력을 못 받았다. 게다가 수석 기술자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며칠 간은 아예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6월이면 한국에 장마가 시작되고 장대비가 쏟아진다. 라오스도 보통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5월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썩 비가 세차게 내렸다. 비는 오기 시작하는데 작업까지 늦어지니 조바심이 났다.

나는 작년에도 캄보디아에서 학교 건축을 했다. 그때도 우기와 공정 기간이 겹쳐있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자재 넣기가 만만치 않았다. 비 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젖은 도로를 보면 자재 운송이 지체될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마음 급하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을 할지만 생각해보자.’

우선 한국인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이 끝나는 9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자재는 중량이 무거운 것을 미리 운송하되, 현장 모니터링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분실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기술자들하고는 여유를 두고 7월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일을 잘 처리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 가는 송테우(1톤 트럭을 개조한 버스) 안에서 문득 놓치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문제 인식이나 해결 방안 제시 과정에서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을 좀 더 참여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공정 기간의 목표를 정할 때, 또는 우기가 오는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예상하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때, 내가 생각한 것들은 그것대로 두고, 주민들에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 묻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 건물이 생기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주민들과 더 밀도 있게 공유하면 어떨까? 나에게도, 마을 주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 답사 이야기

라오스에서 활동한 지 4개월째, 10여 군데 마을을 답사했는데 학교가 없는 마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새로 생긴 마을을 제외하면, 열기설기 역엎더라도 어쨌든 마을마다 학교 건물이 있고,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마을들은 학교가 아주 없거나, 학교가 있어도 선생님이 오지 않는 곳 보다는 사정이 나은 것이다.

이장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주민들이 학교를 직접 지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텃밭 마을은 학교가 좀 허름해서 언제 지었냐고 물어보니 1986년에 지은 건물이란단다. 주민들이 나무로 지은 학교인데 콘크리트로 만든 주춧돌이 닳아서 위험해 보였다.

“지금 기둥이 좀 삭았는데 마을 사람들끼리 보수 하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보수를 못했을까요?”



“보수한다고 하면 목돈이 안 모이니까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은다는 얘기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이 공금을 모아서 학교 신축을 계획할 정도면, 사전에 다른 단체에도 요청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사를 다니다 보니 주민들이 대체로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기구)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토로노”라는 라오스 단체도 10년 전 쯤 이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것 같은데, 이 마을은 왜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있을까?

“그럼 그동안 정부나 다른 단체에서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학교 만들 때 정부에서 지붕 자재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학교 말고 우물이나 도로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을 못 받은 이유는 뭘니까?”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어서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강남북에 차이가 있듯이 라오스에도 형편이 나은 마을이 있고, 어려운 마을이 있다. 도로가 없어서 접근이 어려운 마을, 읍내와 멀어서 바깥소식이 뜸한 마을, 군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구호단체가 찾아와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마을은 외부 지원으로부터 계속 소외가 된다. 마을로 들어올 때도 길 곳곳이 웅덩이였다. 속으로, ‘우기되면 여기는 공사 못하겠는데...’ 이런 걱정을 했는데, 역시 접근이 어려우니까 외부지원이 닿지 않은 것이다.

이번이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세 번째 답사였다. 답사 지역이 확대되면서 조금씩 JTS 사업 원칙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 같다. 텃밭 마을은 이런 면에서는 JTS가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사례가 아닐까?

해외, 7개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후원금을 전달하는 최해기 회장

1. 울산화랑라이온스클럽 최해기 회장, 상금 쾌척

지난 6월 13일, 울산화랑라이온스클럽의 7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최해기 후원자께서, JTS의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에 상금 500만원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JTS의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후원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JTS의 거리 모금을 보고 감명 받아 취임식 상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동안의 미안한 마음을 조금 이나마 덜게 되어 좋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JTS에 방문한 INEB 스님들

2. INEB 소속 동남아 스님들의 JTS 방문

지난 6월 3일, INEB(국제불교참여네트워크) 소속의 동남아시아 지역 스님들이 JTS 활동을 참관하고자 본부 사무국을 방문하셨습니다. JTS 소개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JTS 사업장이 있는 라오스와 미얀마 스님들과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태국 스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활발한 이야기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3. 제주 극락사 휴진스님과 이봉식 후원자님의 계속되는 후원

JTS의 사업을 후원해주고 계신 제주 극락사 휴진스님과 이봉식 후원자께서, 이번에는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의 급식비 2천만원, 라오스의 학교 건축비로 2천만원, 인도 상카시아의 대학 건축비 3,200만원 등, 총 72,152,396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ndia 인도



이동 진료에 신기해서 모여든 아이들

1. 이동진료

더위가 시작되면 지바카 병원은 일주일마다 1회였던 이동 진료를 주 2회로 늘립니다. 겨울에 동계소외리 전체 15개 마을을 한 번씩 방문하려면 3~4달이 걸리지만, 여름에는 한 마을을 두달에 한번 정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앞마당에 자리를 깔고 마을을 돌며 "다와해(약입니다)"라고 외치면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더운 여름, 병원에 찾아오기 힘든 노약자들에게 이동진료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잉 콘테스트에 참가한 아이들

2. 숨어있는 재능을 만났다, 드로잉 콘테스트!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부처님의 일생”을 주제로 전교생이 참여한 그림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이 빨강, 파랑, 노랑 등 색색깔 다양한 모습으로 도화지에 재미있게 담겼습니다. 다양한 개성이 듬뿍 담긴 그림은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보기에 정말로 아까운 마음입니다.



특별수업시간에 배운 댄스를 공연하는 아이들

3. 재미있는 학교, 특별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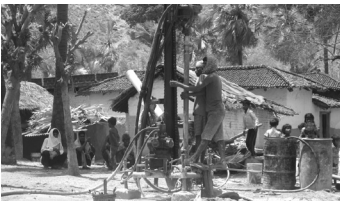
매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특별수업을 합니다. 특별수업은 주로 문화 예능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5학년은 댄스반, 영화 감상반, 태권도 반이 있고, 오후에는 4,5학년 컴퓨터 이론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작은 몸을 제법 꼼지락 대며 음악에 동작을 섞는 댄스반이 가장 인기입니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특별수업으로 재미있게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기 직전의 슬리퍼 맨발은 이제 그만!

4. 즐거운 등굣길 신나는 개근상

내 발에 딱 맞는 슬리퍼가 생겼습니다. 학교에 조금 늦어도 맘껏 달려 학교에 옵니다. 한 달 동안 학교에 성실하게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모자도 나눠줬습니다.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 보이시죠?



기계로 땅을 파는 모습

5. 2014년 새 핸드펌프 보링

건기가 오기 전 새로운 핸드펌프가 필요한 마을을 찾아 선정하여 보링(천공작업)을 시작했습니다. 6군데 새로 기계로 보링을 했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요즘 시기엔 물을 더 많이 사용하여 수리할 것도 많습니다. 새로 설치한 핸드펌프를 모두들 잘 사용하여 물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졸업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 재봉반 학생들

6. 재봉반 초급반 졸업!

지난 6개월간 재봉교사 뿌남데비와 함께 초급반을 마쳐 1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무더운 재봉 교실 안에서 매일 조금씩 서툰 실력이지만 바지와 윗도리 등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재봉반 중급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사중인 유치원 앞 담장

7. 라훌나가르 유치원 담장 공사

한 유치원이 만들어져 학생들이 다니기까지는 여러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창문, 계단, 칠판도 준비해야 하고 페인트 칠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담장은 유치원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 유치원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훌나가르 유치원은 라훌나가르 마을의 주민 한 분이 땅을 기증해서서 담장을 칠 수 있었습니다. 원생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기증해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Philippine 필리핀



만타부 학교 임시 교실

1. 우리도 교실이 생겨요!

만타부 마을 주민들과 JTS는 2014-15 새학기를 맞이하여,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임시 교실을 5월 8일 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교실은 6월 1일 완공되었고, 6월 17일부터 이곳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임시 교실은 학교 증축이 완료될 때까지 4학년 학생들 22명을 위한 수업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

2. 다물록 마카파리 고등학교 방문

다물록시 마카파리 고등학교에 사후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2013년 166명에 불과했던 학생이 어느덧 250명으로 크게 늘어, 교사 4명으로는 부족해서 곧 2명이 더 파견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교육청과 군청에서 계속 지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S가 지원한 블루안, 사라와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마카파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지금은 친척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려고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마늘로 폴티치 학교 건축 논의

지난 6월 20일, 마늘로 폴티치 군청에서 마을 주민과 지역 정부, 지역 교육청, JTS 활동가가 모여 마늘로 폴티치 군의 "길랑길랑"과 "부그나"에 학교를 짓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건축 후 정식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교사 파견을 놓고 열린 논의가 이어졌고, 마침내 길랑길랑과 부그나 지역에 10월 이후 학교를 함께 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건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

4. 마라뵈트 빼나미티난 초등학교 새학기 선물

빼나미티난 초등학교는 복구 사업 대상인 학교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수건을 모두 나눠줬는데도, 이 곳은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선물로 학생들에게 수건을 나눠줬습니다.



새로 짓는 따갈락 초등학교의 모습

5. 따갈락 초등학교 신축

따갈락 초등학교는 16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작은 산 속 학교입니다. 마라뵈트 지역의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해변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이곳 따갈락 학교만 유일하게 산 속에 위치해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JTS는 이 학교의 파손된 기존 교실을 수리하고, 새 교실 2칸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실이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위한 새 교실이 생긴다고 하니 정말 좋아 하셨습니다.



자기 그림을 들어보이는 1학년 학생들

6. 마라뵈트 센트럴 학교 미술수업

6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마라뵈트 센트럴 스쿨에서 미술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그림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기 위한 준비 수업이었습니다. 자유주제를 우선으로 하고, '학교와 친구들'이라는 부주제로 유치원생 부터 6학년생 까지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Laos 라오스



JTS활동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1. 참파삭 대학교 봉사자 모집행사

라오스JTS는 지난 5월 2일 팍세의 참파삭 대학교에서 봉사자 모집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학생들이 찾아왔고, 10명의 학생들이 봉사 활동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라오스JTS는 봉사활동 신청학생과 함께 현장답사, 홍보업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을 길어와 저장해두는 항아리

2. 급수시설 현황조사

라오스 JTS는 수쿠마군청의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부서와 함께 5월 한달동안 수쿠마군 일대의 급수시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을 안의 급수시설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대부분 학교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급수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고, 물 사정이 좋지 않은 마을이 있는지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7월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신아, 최동호, 박종화, 권도영, 정윤미, 민도연, 박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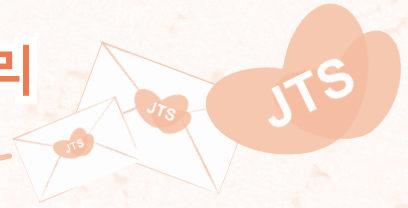
필리핀

민다나오 : 송지홍, 이재곤, 김희자, 박영일
마라뵈트 : 임희성, 원석환, 오성근

라오스

배혜정, 문태훈, 박용대

후원인의 소리



군입대를 앞두고 생일을 맞이해 가난으로 굶주리거나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남경현 -

보시를 생활화 해오신 할머니 홍정자 영가님의 1주기를
추모하며 제3세계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윤미경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이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미약 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 김선희 -

아버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이영하 -

법륜스님과 정토회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송호철 -

박현성의 개명 축하하며 맑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 김정숙 -

적은 돈이지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승 -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번에는 가능하면 '세월호'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_)_
- 서연수 -

JTS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수 있는 지구가 더럽혀지고 환경이 오염된 다면
언젠가는 더 큰 고통이 오지 않을까요? 제 작은 의견은 환경후원기금과 활동이 있음 좋겠습니다.
- 윤빛나 -

김계정, 표중문 결혼 축하합니다
- 최중환 -

딸 박혜정 영가 1주년 기일 극락왕생발원
- 박병준 -

아픔을 함께 하는 보살의 삶을 살겠습니다.
- 허향미 -

최금연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 조정규 박기일 -

특별후원금 (2014. 4. 01. ~ 2014. 5. 31.)

2014년 4월 복한결연

강병규	200,000
강은주	1,000,000
권오현	50,000
김경미	30,000
김라옥	100,000
김민철	10,000
김산	10,000
김수정	50,000
김승희	30,000
김정현	10,000
남경현	100,000
목인봉(김홍임)	80,000
문경수련원	1,613,000
문경숙	10,000
박동민	30,000
박별남	40,000
박수영	100,000
박완임	10,000
박희달	410,000
백건구	30,000
서양숙	50,000
소진호	30,000
송호철	500,000
신재영	30,000
신화진	30,000
여우량	20,000
윤문사시교반	320,000
원화영	500,000
웹브랜드	300,000
위정호	30,000
이상희	300,000
이서영	100,000
이승희	1,000,000
이영하	20,000
이은혜	30,000
이정은	67,310
이진일	20,000
이창희	55,000
정맹기	10,000
정연윤	30,000
정연현	30,000
조혜은	10,000
최상용	300,000
행복약국	50,000
허대영	10,000
허수호	10,000

허항미	150,000
황인영	20,000
NHNNEXT	20,000

인도 모자보건

김 산	10,000
김수정	50,000
여우량	20,000
이영하	20,000
이지영	1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병규	400,000
강영례	50,000
권오현	50,000
김 산	10,000
김성초	100,000
김수정	50,000
김승희	20,000
김영호	60,000
김지원	30,000
김하나	100,000
문경숙	10,000
박기홍	80,000
박별남	30,000
박희달	310,000
서양숙	34,000
손경희	100,000
신재영	10,000
신화진	40,000
여승은	100,000
여우량	20,000
오시영	30,000
웹브랜드	250,000
이규경	10,000
이미숙	28,720
이상희	100,000
이서영	60,000
이영하	20,000
이은혜	30,000
이진일	10,000
이진일	5,000
정현옥	60,000
최상용	100,000
최원정	20,000
최혜련	100,000

한동규	5,000
함용마	500,000
홍정자할머니주기	100,000
황인영	10,000
흥천사 송옥실	300,000
GS칼텍스주식회사	120,000
NHNNEXT	20,000

필리핀

(주)위너텍코리아	312,960
강병규	200,000
강영례	50,000
권오현	50,000
김 산	10,000
김수정	50,000
김승희	20,000
김지안	3,333
문경숙	10,000
박희달	300,000
서양숙	30,000
신재영	10,000
여우량	20,000
오시영	20,000
웹브랜드	200,000
이광준	10,000
이상희	100,000
이영하	20,000
이은혜	30,000
이진일	5,000
진향태	250,000
최상용	100,000
행복약국	50,000
황인영	10,000
NHNNEXT	20,000

JTS 전체사업

(주)야모레퍼시픽	940,000
강병규	200,000
강수정	300,000
강은주	1,000,000
구민지	10,000
권경민	100,000

권기원	37,610
권오현	50,000
권은하	60,000
금삼승민승필	30,000
김경란	57,000
김경미	50,000
김관후	100,000
김금주(분당)	5,000
김기홍	100,000
김명순	60,000
김미영	250,000
김민경	20,000
김민호	10,000
김산	10,000
김성순	300,000
김성환	200,000
김수정	50,000
김순호	170,000
김순현	1,000,000
김승희	30,000
김영선	200,000
김윤홍	70,000
김은아	1,000,000
김정택	1000,000
김정희	20,000
김현일	70,000
김혜진	300,000
김혜진	50,000
김희자	187,020
남경현	100,000
남미애	200,000
남양주	16,000
남준호	10,000
남진남	100,000
달리달1	50,000
류성화	50,000
문경수련원	15,355
문진형	50,000
박경숙	50,000
박노을	120,000
박미화	100,000
박상훈	100,000
박옥경	55,000
박완임	10,000
박은희	30,000
박종하	20,000
박현숙	50,000
박희달	10,000
방수인	1,000,000

배동규	20,000
백화순	50,000
번옥화	10,000
서미옥	10,000
서연수	37,320
생낙정	16,000
송봉모	200,000
손지훈	103,950
수미정	10,000
신동민	30,000
신종원	10,000
인말희	50,000
양기찬	30,000
양승돈	100,000
여승진	100,000
여우량	20,000
연등축제판매금	3,789,510
오영희	10,000,000
오강욱	100,000
유미옥	50,000
유연서	50,000
유영빈	100,000
유옥재	30,000
유코 카 케리어	500,000
윤경숙	5,000,000
윤영실	100,000
윤영숙	100,000
윤빛나	30,000
이명연	50,000
이바둑감자탕	10,000
이병철	70,000
이상현	200,000
이아림	100,000
이영하	20,000
이원형	10,000
이윤희	200,000
이은경	100,000
이은혜	30,000
이응노	53,050
이말권	100,000
이창현	100,000
이현정	30,000
임민아	5,000
장명희	16,000
장재원	1,000,000
정도희	454,600
정혜정	100,000

조성옥	210,000
조용호	100,000
조재희	100,000
조현숙	200,000
조혜은	30,000
주영자	10,000
중국에서	20,000
최근대	100,000
최명옥	100,000
최복림	100,000
최수연	10,000
최영순	200,000
최윤경	50,000
최재희	100,000
최종환	500,000
한국제이티에스	30,000,000
한살림경남	118,000
한지민씨팬	10,000,000
하원진	30,000
홍경주	173,480
홍승희	210,000
홍윤숙	20,000
홍제연	36,000
황인영	10,000
황정숙	20,000
NHNNEXT	10,000

필리핀 긴급구호

박별남	10,000
소진호	30,000
육담방왕세자갤러리	37,671

2014년 5월 복한결연

강인규	30,000
권영위	50,000
권효임	50,000
김경미	30,000
김라옥	50,000
김아사	50,000
김재안	33,000
남승옥	50,000
목인봉(김홍임)	120,000
문경숙	50,000



박동민 30,000	박병선 50,000	권영숙 60,000	박병준 500,000	이태훈 50,000	최진혁 30,000
박별님 20,000	박순점 100,000	권혁 110,000	박세인 30,000	이혜순 50,000	최태자 10,000
박원임 10,000	박희달 50,000	권효임 50,000	박옥경 70,000	이화자 63,000	하상현 500,000
박윤정 100,000	서순례 30,000	금삼승인승필 31,000	박원임 10,000	임근영 500,000	한인순 100,000
박지율 120,000	석성순 200,000	갈벗 206,000	박해순 50,000	임양호 60,000	한진범 9,500
박희달 60,000	신유빈 20,000	김귀숙 47,100	박현정 50,000	임윤정 30,000	행정처 37,700
서순례 30,000	신재영 10,000	김금주 5,000	베트남호텔허브점	임학진 30,000	하영선 100,000
서옥련 70,000	안정현 20,000	김기용 10,000	27,960	임효주 5,000	홍윤숙 20,000
소민경 60,000	오선희 10,000	김나영 500,000	사)한국제이티에스	진경희4월5월 60,000	황인영 10,000
손명수 100,000	우송이 10,000	김낙춘 150,000	1,481,000	장세영 20,000	황정숙 20,000
신유빈 20,000	웹브랜드 200,000	김대우 100,000	서경스님 383,200	장영순 30,000	황학선 600,000
신재영 50,000	윤영실 250,000	김대철 50,000	서미옥 10,000	장 울 30,000	JTS 2,235,640
안정현 20,000	이광준 30,000	김미영 200,000	서인아 10,000	장진희 30,000	COMMUNAUTEJUCARMEL
오미옥 60,000	이민정 1,007,815	김민경 20,000	성낙현 50,000	전성우 33,000	408,926
우송이 10,000	이서영 60,000	김병하 100,000	성재경 500,000	전혜진 20,000	
웹브랜드 200,000	이진일 5,000	김선우 50,000	소재섭 50,000	전화영 100,000	필리핀 긴급구호
윤영실 250,000	임효주 5,000	김선재 32,000	손영수 60,000	정경주 50,000	강영례 100,000
이서영 100,000	정민호 30,000	김선화 100,000	송정숙 50,000	정경주 221,050	권효임 50,000
이성희 24,000	정소희 100,000	김선희 50,000	수미정 10,000	정규환 500,000	김두현 100,000
이수연 200,000	정혜승 20,000	김시은 60,000	수원청년맛보기	정명숙 35,930	박기홍 30,000
이은희 50,000	조은옥 50,000	김영선 100,000	198,000	정모란 30,000	박희달 10,000
이중승 50,000	채경실 50,000	김재춘 100,000	신재영 10,000	정순덕 2,000	서순례 30,000
이진일 10,000	최우진 1,000,000	김정숙 405,000	신재은 10,000	정옥순 5,000	서정익 35,000
익명씨 50,000	하상현 500,000	김정원 30,000	신학봉 10,000	정재수 500,000	소진호 30,000
일상에서깨어있기	황인영 10,000	김태국 10,000	심춘수 10,000	정재희효광스님	우송이 10,000
896,000		김태순 2,500,000	심태숙 50,000	500,000	임효주 5,000
임근영 500,000	필 리 핀	김한숙 52,000	안말희 50,000	정정희(이삼백)	정민호 10,000
임효주 5,000		김향연 30,000	애광원 703,000	100,000	정혜승 10,000
정민호 40,000	권효임 50,000	김현실 10,000	애광원 15,000	정진희(북한) 50,000	황인영 10,000
정연현 50,000	김정미 50,000	김형기 20,000	양승례 100,000	정토희 369,780	
정은희 100,000	박별님 10,000	니경원 100,000	여정민 200,000	정혜승 10,000	
정혜승 30,000	박희달 50,000	니경자 25,000	오명희 200,000	재육재 70,000	
최순희 90,000	백건구 20,000	니용학 5,000	오을미 35,950	조윤수 32,000	
허대영 10,000	서순례 30,000	나중웅 100,000	유수민 21,480	조인숙 300,000	
황선옥 15,000	석윤희 100,000	남명희사하 28,200	윤명실 250,000	조재희 100,000	
황인영 10,000	신재영 10,000	남용우 50,000	윤미옥 50,000	조정애강용수	
	윤명실 250,000	대구동인상사	윤행락 500,000	1,000,000	
인도 및 제3세계	임효주 5,000	1,000,000	이동렬 50,000	조정자 5,000	
	정민호 20,000	대연 125,000	이미향 10,000	중국에서 30,000	
	황인영 10,000	동식초4월3 15,950	이소영 165,000	차정훈 200,000	
강윤례 30,000		류수진 30,000	이승택 300,000	최강숙 200,000	
권효임 50,000	JTS 전체사업	류수진 50,000	이신혜 50,000	최근대 163,000	
김경중 10,000		류인정 258,000	이신혜 50,000	최기원 1,000,000	
김두현 200,000	2916 100,000	무기명 1,000,000	이용숙 132,720	최효정 30,000	
김미순 50,000	강민경 40,000	무기명 729,000	이원형 20,000	최수연 30,000	
김민희 50,000	강인숙 10,000	민목희 100,000	이위선 1,000,000	최수연 30,000	
김정숙 405,000	공성향 140,000	박경숙 100,000	이은규 100,000	최승빈 26,320	
박금자 50,000	곽도순 30,000	박경숙 50,000	이은실 18,805	최제익 30,000	
박기홍 30,000	권상조 30,000	박동수 200,000	이중희 50,000	최종환 500,000	
박별님 20,000					

해외JTS 후원금 (2014. 4. 01. ~ 2014. 5. 31.)

미 국 J T S 201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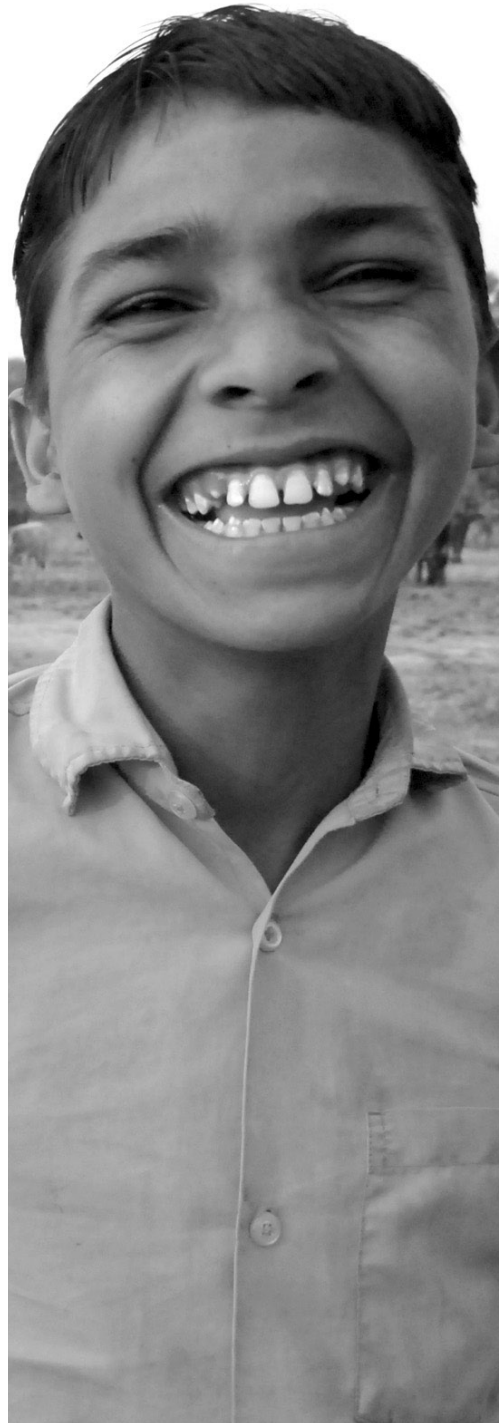
김윤진	\$100.00
무주상	\$10.00
무주상	\$76.00
무주상	\$334.00
이학우/이영숙	\$100.00
최목자	\$100.00
Chong Sik Cho	\$90.00
DIANA JEONG	\$20.00
Dongkeun Lee	\$110.00
Freud P Park	\$80.00
Guiyum Whittington	\$100.00
HAKNO KIM/SOONMI KIM	\$50.00
HANNO KIM/SOONMI KIM	\$50.00
HEESUN HONG	\$50.00
HP	\$100.00
Joe H Ha	\$80.00
Josep/Eunju	\$150.00
JUNG IE JUN	\$30.00
KYUNG J KIM	\$5.00
MANSUNG CHOI	\$20.00
MICHAEL W YANG	\$31.00
Myoung Kim	\$150.00
Mujusang	\$200.00
Mujusang	\$50.00
SE HEE KIM	\$50.00
Seattle Jungto	\$100.00
Su yeong Choe	\$60.00

Sunghee Wojcik	\$300.00
SUSAN KWAK	\$100.00
Yong S Suh	\$100.00

미 국 J T S 2014년 5월

최명숙	\$1,000.00
김세희	\$50.00
김순미	\$50.00
무주상	\$70.00
무주상	\$100.00
무주상	\$30.00
무주상	\$365.00
이규염	\$100.00
이노숙	\$30.00
임선희	\$50.00
최수영	\$60.00
하정목	\$100.00
한혜진	\$200.00
A&J Seattle, LLC	\$40.00
Chongsik Cho	\$100.00
DIANA JEONG	\$100.00
Diane Park	\$100.00
DONG YOUNG YI	\$400.00
Freud Park	\$80.00
HEESUN HONG	\$50.00
JEAN CHA	\$1,000.00
Joe H Ha	\$80.00
JONGSIK M. AHN/ MIYOUNG M. AHN	\$100.00
JUNG IE JUN	\$30.00

KYUNG J KIM/ WHAYOUN KIM	\$5.00
LAUREN CARRE	\$1,000.00
Linda Davis	\$100.00
MANSUNG CJOI	\$20.00
MICHAEL W YANG	\$31.00
Migyong Kim	\$150.00
SEUNGYONG PARK	\$30.00
SUSAN KWAK	\$100.00
ZEN NAILS	\$200.00



나눔저금통 현황 (2014. 04. 01. ~ 2014. 05.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제

SC은행거제지점 79,420

경산

윤현서 58,920 이승연 42,670 조영훈, 조영욱 19,710

경주

경주정보법당 132,020

구미

고은정 12,930 고은정 11,140 김경화 27,460

김해

김정수 36,530

남양주

박명희 15,680 박운속 33,580

대구

강정연 18,340 무명 12,020 무명 15,740 무명 10,620 무명 3,750 무명 30,370 백정숙 67,830 소망 어린이집 108,880 소망어린이집(뿌리줄기반) 14,740 송민규, 차경순 25,230 정용수 41,180 차용백 58,800

대전

김남희 19,030 김도훈 16,860 김명숙 25,550 김민철 26,070 김선영 15,840 김윤경 25,930 김재열 15,460 김재열 22,060 김희수 81,000 동춘한의원 52,680 무명 164,370 무명 26,670 무명 33,180 무명 6,430 무명 14,770 무명 33,960 문성식 30,340 박수진 50,100 안유옥 29,480 안호호 37,340 이재임 26,590 임현수 13,030 홍성관 29,320

동래

강희준 28,360 김강섭 29,010 김수정 24,630 김행란 32,150 무명 58,580 무명 73,720 박상우 14,900 박영윤 20,700 배양희 2,960 서창탁구 18,210 이상훈 27,350 이아지 28,930 이주경 10,000 이항순 18,070 임원지 6,670 조유진 6,220 최훈서 13,250 허준 19,690

안양

박효남 28,790 정옥순 35,790 정용주 28,200 최종학 25,050 최현숙 15,960

양산

백길남 49,000 이장산 29,590 이지민 25,890 이재운 51,780

여수

여수법당 125,480

영인

용인법당대지 517,700

울산

구영리배리바게뜨푸르지오점 28,800 권교중 33,390 권현숙 11,790 김계원 34,460 김숙자 26,250 김시형 30,090 김신호 46,650 김영주 99,240 김희정 21,760 두북농협 40,470 무명 12,700 문정재 30,440 손장희 27,030 속미음실 66,380 심숙희 42,450 심숙희 44,300 윤금숙 23,330 윤정인 23,410 이연희 82,500 이주현 28,000 정월향 14,580 정정영 32,010 차미아 27,750 최명숙 32,260 최병용 27,170

인천

인천 37,280

청원

무명 28,580 무명 51,000 무명 34,670 무명 86,080 무명 54,160 무명 30,430

청주

공태석 59,100 공태석 27,400 권용란 3,360 김동수 48,050 김명중 31,610 김민석 58,440 김정윤 25,930 김현중 19,070 박중신 30,350 백수정 56,860 양경애 30,210 연재문 17,750 오영주 36,850 오익석 17,410 윤귀예 23,500 이금숙 15,390 정미숙 75,450 최덕해 68,200 태순이 17,380 황경석 95,200

태진

권기원 37,610 권민경 38,680

평택

평택동석초4-3 13,350

포항

박설희 33,250 전소연 29,600 진정숙 15,750 최현서 47,250 황옥희 34,850

해운대

김문희 19,720 무명 23,460 무명 9,060 무명 26,560 무명 17,580 무명 69,680 박강민 17,000 성다인 40,380 이간영 26,060 이문희 21,810 추성민, 추민건 236,880 허연화 21,900

기타

강동저금통 12,100 광동중저금통 37,440 김미숙 23,750 김병숙 13,710 임영임 29,130 전경준 35,420 조영훈 19,710 최현정 30,720 현승명살래 13,420 한잔범 14,000 한잔범 11,250

거리 모금 현황

2014년 04월 01일부터 2014년 05월 31일까지

강서 153,000 강화 75,410 경주 84,000 구미 317,190 김천 100,000 김해 463,520 남양주 245,370 내서 103,000 노원 674,220 달서 463,350 대구 1,779,400 분당 188,540 안양 158,480 용인 331,960 이경희 186,000 인사동 642,550 평택 205,800 포항 684,0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제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시는 사업(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인도 및 제3세계 돌기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필리핀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북한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JTS 전체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나,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성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또는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주소 (<input type="checkbox"/> JTS의 소식이 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3. CMS 후원금 인출계좌 후원금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년	월	일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거나, 예금주의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예금주 연락처 : 후원금 출금일)				
후원금 지정출금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 CMS 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정 후원금을 인출계좌에서 JTS의 후원계좌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 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 출금일인 10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17일과 25일에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 CMS 출금이체 약관 (자세한 약관은 www.jts.or.kr/domain/cms.html 을 참고하세요.)

본인은 (사)한국제이티에스에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지정된 출금일에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만일 출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사)한국제이티에스와 협의하여 출금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 전지금융장자 및 (사)한국제이티에스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후원금의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회원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납부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계좌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고유 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

제공대상 (사)금융결제원 | 제공목적 CMS 출금이체 승인 및 정산 | 제공정보 |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 이용기간 |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까지. 단, 법령에 의거 임정기간 보관합니다.

제공대상 (주)휴먼소프트웨어 | 제공목적 | 회원관리, 후원금 결제, 온라인 회원 서비스, 기부금영수증 발행, 용기간 |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제공대상 | 국제정 | 제공목적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 제공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관기간 | 5년 | 거부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출금이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JTS 후원계좌 안내

특별후원금 계좌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눔저금예 입금 계좌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사)한국제이티에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1 3 7 - 8 7 5